부모자녀건강학회지 제18권, 제1호, 2015년 6월
Korean Parent Child Health J Vol. 18 No. 1, 19-27, June, 2015 ISSN 1229-263X

영아전담보육시설 보육교사의 교육요구

하영혜[1] · 방경숙[2]

건강보험심사평가원[1],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 교수[2]

Educational Demands among Teachers at Infant Daycare Centers

Ha, Younghea[1] · Bang, Kyung-Sook[2]

[1]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Seoul
[2]Professor, College of Nursing ·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educational demands of teachers in the daycare centers for infant healthcare. **Methods:** Sixty-nine teachers who in charge of children under 1 year old at infant daycare centers participated from January 2 to March 31, 2012.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using SPSS 21.0. **Results:** Education demands among teachers of infant daycare centers were high in health and safety domain. Teachers prefer 6 month as the term of educ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Also, three hours or less of session under the auspices of health and safety organizations were preferred. Mostly demanded education contents were first-aid skills depending on diverse types of accidents. In addition, teachers required repeat of practically available first-aid education programs with improved educational conditions. **Conclusion:** This study offered crucial examination of current status and key problems of infant healthcare at infant daycare centers in Seoul and Gyeonggi areas, and identified educational demands for infant healthcare among infant teachers.

Key Words: Infant, Daycare center, Healthcare, Infant teacher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더불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이 점차 하향화되고 있다. 보육통계에 따르면 2013년 보육시설 이용 총 아동 수에 대한 만0세 영아의 비율은 약 10.0%로, 이는 2002년 1.45%의 수치와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Statistics Korea, 2013). 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일과 양육의 양립에 대한 제도로서의 보육요구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 한 원인으로(Kim, 2011), 특히 3개월의 출산휴가가 끝난 시점에서 영아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을 경우, 일과 양육의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취업 모에게는 더욱 그 요구가 클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에 따른 취업률은 출산과 양육의 시기인 30~34세에서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그 후에 다시 상승하는 M자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Statistics Korea, 2014), 이는 우리나라의 영아 보육서비스의 미흡함을 나타내고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를 도입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지만(Ministry for Health,

주요어: 영아, 보육시설, 건강관리, 보육교사

Corresponding author: Bang, Kyung-Sook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03 Daehak-ro, Jongno-gu, Seoul 110-799, Korea.
Tel: +82-740-8819, Fax: +82-02-765-4103, E-mail: ksbang@snu.ac.kr

- 본 논문은 제1저자 하영혜의 201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This manuscript is based on a part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5년 3월 9일 / 심사완료일: 2015년 6월 15일 / 게재확정일: 2015년 6월 20일

© 2015 The Academic Society Parent-Child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11) 우리나라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영유아의 연령 분포를 보면 2011년 기준 총 보육인원대비 만0세 아동은 약 10.9%이며, 만 1세 18.5%, 만 2세 25.4%, 만 3세 20%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1a). 또한 보육시설의 70% 이상에서 영아와 유아를 함께 보육하거나 유아만 보육하고 있다는 결과로 미루어 볼 때(Yang, Kim, Lee, Shin, & Seo, 2009). 사실상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는 영아보다는 유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영아와 유아는 엄연히 다른 발달 단계에 있고, 그 특성에 따라 보육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영아기의 보육은 교육보다는 보호, 보살핌의 기능이 강하고, 특히 영아기의 취약한 건강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영아의 건강관리는 영아보육서비스의 핵심적인 영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의 의식구조상 대다수의 부모들은 영아를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아 하는데, 이는 영아를 보육시설에 맡길 때 건강, 영양, 안전관리의 영역을 가장 염려하기 때문이다(Kim, 2005). 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보육서비스의 영역 중 영유아의 영양관리, 건강관리, 안전관리가 적절할수록 기혼여성의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Lee, 2004), 소비자의 요구에도 보육시설 영아의 건강관리요구가 크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Yim, 2003).

영아기의 건강은 일생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발달과제이기 때문에 영아를 장시간 돌보게 되는 영아보육시설의 영아 건강관리 역할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생후 1년 이내의 영아기는 일생 중 가장 활발한 신체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로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며, 신체기관의 기능이 미숙하고 면역력이 약하여 각종 질병 및 전염성 질병에 취약하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Kim & Han, 2006; Jang, 2000). 또한 보육교사 수준에서의 영아 건강관리 수행능력 부족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영아보육교사는 낮 시간 동안 영아와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하며 일선에서 영아의 건강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으로 보육영아의 건강상태 파악 및 관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전문적인 영아 건강관리 수행능력 및 지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Kim, 2002; Park, 2011).

결국 영아보육 수요증가라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추어, 보육에서 좀 더 집중적인 보살핌이 요구되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특히 그 중 질적인 향상의 일환으로서 영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영아보육교사의 영아건강관리에 대한 요구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간호학적인 시각에서 보육시설에서의 건강관리는 현황, 문제점과 개선요구, 교육요구 그리고 건강관리 프로토콜 개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등의 다양한 주제로 논의되어 왔다(Kim et al., 2009; Oh, Sim, & Choi, 2009: Yang et al., 2009). 하지만 대다수의 간호 분야 연구는 영아와 유아, 학령전기 아동을 모두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영아에만 초점을 맞추어 건강교육요구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타 학문분야의 연구에서 국내의 영아보육을 다룬 문헌들을 살펴보면 영아보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영아보육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Gang, 2006; Yim, 2003) 보육시설에서 영아의 교육적 측면이 아닌 건강관리영역에 초점을 맞춘 문헌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후 12개월 이하인 만0세반 영아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고,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가정 등의 모든 유형의 영아 전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영아 보육교사의 영아의 건강,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요구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영아보육의 질적 향상의 일환으로서 영아보육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지침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영아전담 보육시설 영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영아의 건강,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요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영아전담 보육시설 영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영아 건강, 안전 관련 교육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만 0세 반을 운영하고 있는 영아전담 보육시설 중 임의 표출법에 의해 선정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0년 12월 31일 보육통계에 따라 서울 57개소 경기 지역 58개소의 영아전담보육시설의 영아 교사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2012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 전화연락을 통해 연구참여를 허락한 영아전담보육시설은 35개 시설이었고(30.4%) 이들 시설장의 0세 반 보육교사 80명에게 설문지를 직접 혹은 우편으로 배포하였으며, 그 중 회수된 0세반 보육교사 69명(회수율 82%)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 영아 보육교사의 건강관리 교육요구

영아보육교사의 건강관리 교육요구는 Lee (2009)의 영아의 건강, 안전에 대한 교사교육 설문지의 내용을 발췌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영아교사의 건강·안전에 대한 관리 실태, 인식, 지식, 사고 경험, 교육경험, 교육 요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다수 선행연구를 참고로 연구자가 질문지를 구성한 것으로, 이 중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를 묻는 17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연수를 통해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는 .92였다. 본 연구자는 위의 도구를 영아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한 후 아동간호학교수 1인, 영아전담 보육시설원장 1인, 5년 이상 영아를 돌본 경험이 있는 간호사 2인의 타당도 검증을 거친 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2였다.

4. 자료수집

연구자 소속대학의 연구대상자보호 심의위원회로부터 연구승인을 받은 후(승인번호 2011-63) 자료수집을 진행하였으며 2010년 12월 31일 보육통계를 기준으로 서울 57개소 경기지역 58개소의 영아전담보육시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고,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영아전담보육시설의 주소록을 확보하였다. 확보된 주소록에서 임의표출에 의해 선정된 기관에 전화연락을 한 후 및 직접방문 및 우편을 통해 연구대상 보육시설을 수급하였다. 2012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전화연락을 통해 연구참여를 허락한 영아전담보육시설은 35개 시설이었고(30.4%) 이들 시설의 0세 반 보육교사 80명에게 설문지를 직접 혹은 우편으로 배포하였으며, 연구참여에 대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그 중 0세 반 보육교사용 설문지 69부가 회수되어 최종 연구에 사용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보육교사의 일반현황 및 각 항목에 따른 내용을 빈도, 백분율, 평균값,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영아전담 보육시설에서 0세 반의 일반현황을 파악한 결과 0세 반 평균 교사 수는 2.23명, 평균 영아 수는 6.48명으로 나타났으며, 교사 대 영아의 비율은 약 1:2.94였다. 교사의 연령대는 '40세 이상'이 3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총 보육경력은 '7년 이상'의 경우가 52.2%로 가장 많았고, 0세 보육경력으로는 '1년 이상~3년 미만'의 경우가 46.4%, '3년 이상~5년 미만'의 경우가 42.0%로 큰 비율을 나타내었다(Table 1).

2. 만 0세 반 교사의 영아의 건강, 안전에 관한 교육경험

만 0세반 교사의 영아 건강, 안전 관련 교육경험을 살펴보면 97.1%의 0세 반 교사들이 영아전담 보육시설 근무 중 영아의 건강,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영아 건강, 안전 관련 교육은 주로 '약 1회/년'(55.1%)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육의 주최는 대다수가 보수교육기관(71.6%)이었으며 교육방법은 92.5%가 '강연'이었다. 영아전담 보육시설의 0세 반 교사들이 받은 영아의 건강, 안전 관련 교육 내용은 '응급처치'(80.6%)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의 교사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Table 2).

3. 만 0세 반 교사의 영아의 건강, 안전에 관한 교육요구

만 0세반 영아의 건강, 안전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50.7 %의 교사들이 '매우 필요하다', 47.8%의 교사들이 '필요하다'라고 대다수의 교사들이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영아의 건강, 안전에 관한 교사교육의 목적으로는 '안전사고 예방'이 52.2%로 1순위로 나타났고, 교육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건강, 안전 관련 기관(병원, 보건소, 소방서, 안전 공단 등.)'이 43.5%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시간은 '6개월마다, 3시간 이하'(42.0%)가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절한 교육 시기는 '학기 초(3~4월)'(42.0%)라고 응답하였다. 교육방법으로는 '주제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혼용'(52.5%)하기를 원하였고, '관련 영상매체 관람 및 실습'(42.0%)의 방법도 높은 요구를 나타

Table 1. General Status of Teachers for Infants Aged 0 at Infant Day-care Centers (*N*=69)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Status of infant group aged 0	Number of teachers per group	2.23±0.84
	Number of 0 years old infants	6.48±2.81
	Number of 0 years old infants per teacher	2.94±0.79
Teachers age (year)	≥40	22 (31.9)
	30~34	21 (30.4)
	25~29	13 (18.8)
	35~39	12 (17.4)
	20~24	1 (1.4)
Total child-care experience (year)	1~3	9 (13.0)
	4~5	9 (13.0)
	6~7	15 (21.7)
	≥8	36 (52.2)
≥12 month old infant care experience (year)	1~3	32 (46.4)
	4~5	29 (42.0)
	6~7	6 (8.7)
	≥8	2 (2.9)
Academic background	Community college graduate	29 (42.0)
	College graduate	18 (26.1)
	Finished the day-care (nursery) course	14 (20.3)
	Graduate from graduate school	4 (5.8)
	Undergraduate student	3 (4.3)
	Graduate student	1 (1.4)
License*	First-class license of day-care teacher	53 (76.8)
	The director license	23 (33.3)
	Second-class license of kindergarten teacher	18 (26.1)
	Second-class license of day-care teacher	16 (23.2)
	First-class license of kindergarten teacher	3 (4.3)
	Etc. (Include Social worker license)	3 (4.3)
	Third-class license of day-care teacher	2 (2.9)

*Multiple responses.

Table 2. Education Experience among Teachers for Infants Aged 0 (*N*=69)

Variables	Categories	n (%)
Education experience	Yes	67 (97.1)
	No	2 (2.9)
Frequency	Once a year	38 (55.1)
	Twice a year	18 (26.1)
	Every 2 years	11 (15.9)
	No answer	2 (2.9)
Organizer*	Education agency	48 (71.6)
	Day-care center	23 (34.3)
	Specialized agency of health/safety	22 (32.8)
	Office of education	2 (3.0)
Method*	Lecture	62 (92.5)
	Watching Videos	18 (26.9)
	Practical training	10 (14.9)
	Discussion	7 (10.4)
Theme*	Emergency treatment	54 (80.6)
	Nutrition/ Hygiene	45 (67.2)
	Appropriate environment	38 (56.7)
	Growth and development of infant	34 (50.7)
	Infectious disease	22 (32.8)
	Safety guidelines	12 (17.9)
Degree of helpfulness	Very helpful	22 (31.9)
	A little helpful	41 (59.4)
	Not helpful	4 (5.8)
	No Answer	2 (2.9)

*Multiple responses.

내었다(Table 3).

또한 Table 4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사고유형에 따른 응급 처치법'(4.49), '사고사례와 예방법'(4.42), '영유아기 발달 및 사고원인이 되는 행동특성'(4.32), '주요 질환의 증상 및 간호'(4.10), '영아기 영양과 식습관 관리'(4.04)가 상위 5가지 항목으로 나타나 자세히 교육받기를 원하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방접종 내용 및 시기'의 교육이 3.51점으로 가장 낮은 요구를 나타냈다.

4. 영아의 건강, 안전에 관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 개선점

0세 교사가 지적한 영아 건강, 안전에 관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관한 기타의견은 크게 '응급처치 관련 교육 강조', '교육을 위한 여건개선 필요', '실제적인 교육의 필요성'의 세 가지 항목으로 범주화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5와 같다.

논 의

본 연구는 영아 전담보육시설 영아의 건강, 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영아 보육교사의 영아 건강, 안전 관련 교육요구를 파

Table 3. Necessity, Purpose, Educational Demands about Infant Healthcare (*N*=69)

Variables	Categories	n (%)
Necessity	Very necessary	35 (50.7)
	Necessary	33 (47.8)
	Not necessary	1 (1.4)
Purpose*	To prevent safety accident	36 (52.2)
	To understand Infant growth/development	23 (33.3)
	To acquire first-aid treatment	22 (31.9)
	To instruct infant	17 (24.6)
	To form appropriate attitude about infant health	14 (20.3)
	To instruct parents	6 (8.7)
	To make a plan about infant health	1 (1.4)
Organizer teachers demand	Specialized Agency about health/safety	30 (43.5)
	Education agency	23 (33.3)
	Day-care center	9 (13.0)
	Office of education	4 (5.8)
	Etc.	2 (2.9)
	University	1 (1.4)
Education period teachers demand	Every 6 months, less than 3 hrs	29 (42.0)
	Yearly, less than 3 hrs	15 (21.7)
	Every 3 months, less than 3 hrs	11 (15.9)
	Every 6 months, less than 4~6 hrs	7 (10.1)
	Yearly, less than 4~6 hrs	4 (5.8)
	Every 3 months, less than 4~6 hrs	2 (2.9)
	Every 6 months, less than 7~10 hrs	1 (1.4)
Education session teachers demand	In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29 (42.0)
	First semester	19 (27.5)
	At the end of the semester	14 (20.3)
	Second semester	7 (10.1)
Education demand teachers demand	Variously, according to its subject	36 (52.2)
	Watching videos or practice	29 (42.0)
	Lectures	4 (5.8)

*Multiple responses.

Table 4. Teachers Preferred Education Contents about Infant Healthcare (*N*=69)

Education contents	M±SD
First-aid treatments based on the type of the emergency	4.49±0.72
Cases and prevention of emergency	4.42±0.76
Infants characteristics causing accident	4.32±0.74
Symptoms and nursing of main disease	4.10±0.83
Nutrition and eating habits	4.04±0.79
Method of medical equipments	4.00±0.82
Check of growth and development	3.99±0.83
Education for parents about Infant safety at home	3.96±0.88
Right medication for Infant	3.93±0.88
How to deal with safety accident	3.87±0.92
The law about safety management of facilities or equipments	3.84±0.82
Education for teachers about examples of developed countries on safety management	3.83±0.87
Infectious disease and prevention of it	3.83±0.79
How to deal with disaster	3.78±0.87
How to make out a schedule of infant health care	3.62±0.96
Documents which Day-care centers should have	3.58±0.95
Infant vaccination	3.51±0.90

악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 및 개선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영아전담 보육시설 0세 반 교사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교사 수와 영아 수의 비율은 1:2.94로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1:3)와 거의 같았다. 0세 반 교사의 연령과 경력을 살펴본 결과 만3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였던 Lee (2009)의 연구에서와 달리 0세 반의 경우 비교적으로 총 보육경력과 연령대가 높은 교사들이 보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영아 경력에 따라서 영아교사의 역할 수행 인식과 유아교사 역할 수행 인식 차이 없다고 나타났다.

둘째, 영아의 건강 안전에 관한 교육 경험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교사들이 건강, 안전 관련 교육을 받고 있기는 하였으나, '년 1회'(55.1%), '보수교육기관'(71.6%)으로부터 '강연'(92.5%)의 방법을 통해 교육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연 1회 보수교육이 의무화 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형식적인 교육이 될 수 있으며 일회성 교육은 실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떨어진다. 앞선 현황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수의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내부교육(89.7%)과 외부교육(79.3%)의 방법으로 영아의 건강,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내부교육 시 교육자는 시설장(41.4%), 외부전문가 초빙(27.6%)의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시설장의 경우 건강관리 전문 인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 보육시설 방문간호사 혹은 상주간호사에 의한 교육내용 및 질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어린이 집에서 투약을 담당하는 사람은 94.4%가 담임교사였다는 선행연구(Kim & Park, 2012)에 따르면 대부분 실제로 영아에게 처치와 투약을 할 수 있는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 대다수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어쩔

Table 5. Problems and Remedies for Teacher Education Programs for Infant Healthcare and Safety Presented by Teachers for Infants Aged Zero (*N*=69)

Contents		n
First aid/ safety-related accidents	Teachers want practice education on emergency situations and countermeasures for infants*	8
	Teachers require education on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safety-related accidents among infants*	6
	Teachers require education on the methods for management of safety facilities within infant daycare facilities	1
Practical education	Teachers need health education applicable to infants depending on their age of months	3
	Teachers need education practically available on the spot of childcare	3
	Teachers need standardized data practically available on the spot of childcare	2
	Teachers need to be educated about how to respond to the symptoms of diseases (including infectious ones) frequently affecting infants during the childcare*	2
Improvement in educational conditions	It is hard to spare a separate time for teacher education due to the long hours of childcare*	3
	Alternative manpower is necessary for teacher education	2
	It is necessary to ensure education in line with each daycare center's features	1
	Teachers want on-site education at daycare centers *	1
	Teachers avoid receiving education too late	1
	Professional manpower is necessary to educate teachers about infant healthcare	1
Total		34
Non-responses		40

*Multiple responses.

수 없이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교육내용의 점검이 필요하다.

영아의 건강, 안전 관련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90% 이상의 교사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Kim과 Park (2012)의 연구에서 영아건강관리 교육경험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0%로 응답율이 매우 낮은 것과 대조되게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에 대해서 필요성은 필요하나, '강연'에 의한 주입식 교육방법은 질병관리, 응급처치 혹은 응급상황관리의 교육일 경우 실제적 수행능력에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앞서 강조하였던 바와 같이 실제 사례 토론 혹은 실습을 통한 교육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대다수의 영아 교사들이(98.5%) 영아의 건강, 안전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교육의 목적으로 '안전사고예방', '영아발달특성 이해', '응급처치 방법 습득'을 꼽았으며, 이는 Lee (2009)의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때 '영아발달특성 이해' 항목이 강조되어 나타났다. 이는 0세 성장발달 특성에 따른 건강,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요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0세 반 교사들은 병원, 보건소, 소방서, 안전공단 등의 건강, 안전 관련 전문기관 주최로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이는 현황조사에서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우선적인 개선요구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협조체계'를 꼽았던 결과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적절한 교육시간으로는 '6개월마다, 3시간 이하'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이소정의 결과와 같으며 반복적인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방법으로는 교육주제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혼용하여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영아 교사들은 영아의 건강, 안전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이며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실제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수교육이나 직무교육은 영아 안전의 전문성이 매우 떨어지며, 교육은 영아반 특성에 맞게 좀 더 체계적이고 짧은 주기를 두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다.

넷째, 영아교사들이 자세히 교육받기를 원하는 항목 중 상위 5가지 내용으로는 '다양한 사고유형에 따른 응급처치법', '보육시설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법', '영아기 발달 및 사고원인이 되는 행동특성', '영아의 주요질환 증상 및 간호', '영아기 영양과 식습관 관리'로 나타났으며, 이중 '응급처치방법'에 대한 교육요구가 높았던 결과는 다수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다 (Kim, 2003b; Lee, 2009; Lee, 2012; Oh, Sim, Choi, 2009). 이는 모든 보육시설 영유아뿐 아니라 본 연구의 대상인 영아에게 응급사고가 상당 수 발생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스스로도 영아 응급사고 대처에 관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실제 응급상황 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받기를 원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실제적인 필요성뿐만 아니라 영아 보육교사의 요구를 반영하여 영아 건강,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중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정을 보수교육과 별개의 필수과정으로 마련하여 보육시설 상주 및 방문간호사와 응급상황 전문 인력에 의한 단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 실습위주의 교육을 통해 모든 영아보육교사의 응급처치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안전교육에서 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연구한 Kim (2005)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안전 교육에 대한 참여의지는 높으나,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에서 안전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이러한 요구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응급 처치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데는 1세 미만 영아는 영아 돌연사, 질식, 낙상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Powell & Tanz, 2002) 실제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를 해야 할 담당자는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보육시설에서 이루어 져야 하므로 더더욱 영아의 연령에 맞는 응급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영아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한편 '예방접종 내용 및 시기'의 항목 상대적으로 교육요구도가 낮았는데, 이는 영아전담보육시설에서 영아의 예방접종 관리가 대다수 부모에게 위임되고 현실에 비추어볼 때, 영아 보육교사들 입장에서 당장 현실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섯째, 0세 보육교사에게 현재 건강, 안전에 관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나 제안에 관해 서술하는 문항에서 교사들은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첫째, 응급처치 교육을 재차 강조하고 있었으며, 둘째, 교육을 위한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고 셋째, 좀 더 실제적인,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을 요구하였다. 교육을 위한 여건 개선의 요구 사항으로는 무엇보다 어떤 교육을 받기 위한 시간을 내기 힘들다고 지적하였으며, 맞벌이 부부 증가 등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영아의 보육시간이 길고, 대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을 개최한다 하더라도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또한 자체적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자료와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영아 건강,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영아의 발달적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전체 교사의 92.8%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Jeong과 Sung의 연구결과(2011)와 유사하며 더더욱 발달단계에 맞는 전문적인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영아보육시설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품과 비할 수는 없기에 영아 부모들의 기대치는 높을 수밖에 없다. 영아보육은 교육보다는 건강, 안전, 보살핌의 영역이 강조된다는 점에서(Choi, 2003; Kim, 2005; Lee, 2004) 유아보육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앞서 논의에서처럼 아직까지 우리나라 영아보육에서 건강, 안전관리 수준은 아직 만족할 만한 단계는 아니며 꾸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건강, 안전관리를 위한 영아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 시설 내 건강, 안전관리 전문 인력의 확충, 영아의 건강, 안전관리 관련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바이며 재차 강조되는 영아 질병관리, 영아응급상황대처에 대한 교육은 아동간호사의 역할임이 분명하다.

현실적으로 영아전담 보육시설의 건강,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비해 시설 내 건강,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관할 지역 보건소의 보육시설 영아 건강관리의 인적 지원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몇몇 주의 경우 Child Care Health Consultant (CCHC)라는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어 보육시설 아동의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Indiana Government, 2012; Virginia Department of Health, 2009), 실제로 다수의 보육 시설장들이 보육시설 건강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더욱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Gaines, Wold, Spencer, & Leary, 2005). 서울시는 2010, 2011년 서울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통해 운영해 온 서울형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파견 사업을 통해 영아 보육률이 높은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관리, 전염병관리, 건강, 안전교육실시, 성장발달 체크, 건강기록부 작성 등의 업무를 시행해 왔다(Seoul Family Child Care Center Association, 2010). 또한 현재 2012년 5월경부터 서울시 주최로 보육시설 방문간호사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영아에게 보다 적합하게 활성화 될 수 있기 위해서 무엇보다 보육시설 영아의 월령 및 연령에 따라 방문기준이나 방문간호사의 배치기준 등의 관리기준을 구체화하고, 실시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체계가 갖추어 지기를 기대한다. 프랑스의 가정 보육모 제도의 경우 엄격한 서류심사와 교육과정을 통해 가정 보육모의 자격이 주어지며(Hwang, 2002) 이로써 가정보육모의 사회적 위상과 전문성 향상을 꾀할 수 있었다. 현재 지역사회의 방문간호사를 보육시설 방문간호사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조사(Yang, Kim, Kwon, Lee, & Kim, 2011)에 따르면 보육시설에서 요구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에 비하여 방문간호사가 자각하는 업무수행 가능 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영아건강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우리나라도 보육시설 방문간호사의 영아 간호에 대한 경력 및 소양, 교육이수 등의 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영아에 초점을 맞추어 영아전담 보육시설의 건강, 안전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향을 찾고자 하였으며 영아 보육교사의 건강,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여 영아보육의 질적 향상의 일환으로서 영아보육의 건강, 안전관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하지만 서울시, 경기 지역의 일부 영아전담 보육시설만을 자료수집 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전체 영아전담 보육시설의 현황으로 일반화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영아전담 보육시설의 영아의 건강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며, 영아 보육교사의 영아의 건강,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요구를 조사하여 보육시설 영아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지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영아전담 보육시설 0세반 교사들은 대부분 영아 건강, 안전관리의 교육에 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건강, 안전 관련 기관'을 주최로,'6개월마다, 3시간 이하'의 교육을 학기 초에 받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다. 선호하는 교육내용은'다양한 사고유형에 따른 응급 처치법', '사고사례와 예방법', '영유아기 발달 및 사고원인이 되는 행동특성', '주요 질환의 증상 및 간호','영아기 영양과 식습관 관리'의 순이었다. 추가적으로 문제점 및 제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좀 더 실습위주의 반복적인 응급처치교육, 실제로 활용 가능한 교육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교육을 위한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위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에서 영아의 건강관리를 담당하게 되는 영아 보육교사의 영아 건강, 안전에 대한 지식 수준,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이를 위해 영아보육교사의 요구에 맞추어 실습위주의, 실제적인 교육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아보육이 확대되고 있는 맞벌이 부부 및 취업모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영아보육에서 건강, 안전관리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및 요구조사를 위한 양적, 질적 연구와 영아보육시설 내의 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유무에 따른 보육시설 영아 건강, 안전관리 수준의 비교 연구, 그리고 영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영아의 건강, 안전관리 제공방법, 시기, 유형에 따른 교육효과 비교 연구가 향후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Choi, Y. S. (2003). *Investigation on the desire of female workers nurturing children for nursery facilities for inf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Eui University, Busan.

Gaines, S. K., Wold, J. L., Spencer, L., & Leary, J. M. (2005). Assessing the need for child-care health consultants. *Public Health Nursing, 22*(1), 8-16.

Gang, S. H. (2006). *A study on problems and reform plan of child-care recognized by the facility chief, child-care teachers and parents of children dedicated facility: Focusing on civil-operated children dedi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ungji University, Seoul.

Hwang, S. W. (2002). A study on home-centered care & education of infant/toddler in France-education and administration of assistante maternell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2*(1), 189-208.

Indiana Government. (n. d.). *Child care health consultant.* Retrieved April 20, 2012, from http://www.in.gov/fssa/carefinder/2753.htm

Jang, Y. H. (2000). *Early childhood curriculum.* Kyung-gi, Paju: Yangseowon.

Jeong, J. K., & Sung, S. Y. (2011). The recognition, practices and knowledge of child care teachers for infant safety.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8*(2), 125-149.

Kim, H. S. (2002). *A study on the teacher's cognition of infant/toddler program in day care cent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im, I. O., & Kang, R. H. (2005). A survey on the health examination of child care center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1*(3), 308-315.

Kim, I. O., & Park, H. (2012). A survey on knowledge, experience and educational need child care teacher on infant health management.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7*(5), 99-120.

Kim, J. S. (2003a). Health status of children in the day care centers. *Journal of Korean Parent Child Health, 10*(1), 13-24.

Kim, J. S. (2003b). *A survey on teacher's health needs in child care cent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im, J. S., & Han, K. J. (2006). Health problems and health services in child day care center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2*(1), 25-33

Kim, J. W. (2011). *Research on improving child care policies to promote childbirth-based on perception of parents of Bucheoun child care fac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im, S. H. (2005). *A study on safety knowledge, perception of safety training and relevant needs among preschool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

sity, Seoul.

Kim, S. J., Yang, S. O., Kang, K. A., Lee, J. E., Lee, S. H., Jang, E. Y., et al.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rotocols for health management of children in child day care center.* Gangwon: Hallym University Health Promotion Institute.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3). *Childcare statistics.* Retrieved September 19, 2014, from http://meta.narastat.kr/metasvc/index.do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4). *Women's lives through statistics in 2014.* Retrieved July 1, 2014, from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Lee, J. S. (2012). *Teacher's abilities: Emergency and administering first aid in daycare cent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Lee, S. J. (2009). *A study on the knowledge level of toddler teachers about toddler's health safety, education needs and management condi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Lee, Y. B. (2004). *The Influence of child care service on marred women's ferti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11). *Childcare plans.* Retrieved July 1, 2012, from http://central.childcare.go.kr/

Oh, K. S., Sim, M. K., & Choi, E. K. (2009). Effect of and education program on child health and safety for child care teacher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5*(1), 5-14.

Park, J. M. (2011). *A study on the practice level and barriers of the infant under 2 years child care teachers for standard child-care course-focusing on the Seoul infant care cent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Powell, E. C., & Tanz, R. R. (2002). Adjustion our view of injury risk: The bruden of non fatal injuries in infancy. *Pediatrics, 110*(4), 792-796.

Seoul Family Child Care Center Association. (2010). *Report on dispatched nurses at home daycare center.* Retrieved July 1, 2012, from http://citycare06.or.kr/html/board/index.asp?board=4&boardPage=view&idx=558

Virginia Department of Health. (2009). *Child Care Health Consultant* (*CCHC).* Retrieved April 20, 2012, from http://www.vahealth.org/childadolescenthealth/EarlyChildhoodHealth/HealthyChildCareVA/cchc.htm

Yang, S. O., Kim, S. J., Lee, S. H., Shin, H. R., & Seo, W. K.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olicy and strategies for health management of children in community child facility.* Gangwon: Hallym University Health Promotion Institute.

Yang, W. O., Kim, S. J., Kwon, M. S., Lee, S. H., & Kim, S. H. (2001). A survey on the use of visiting nurses in child day care cent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2*(2), 87-99.

Yim, K. J. (2003). *The ways of improving infant nurture services with perceptions of infant mothers at day-care cent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